

원희룡 장관, “한-싱가포르 협력관계 공고화”

- 5.4일 싱가포르 총리실 장관 만나 주택도시·인프라 협력 논의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4일(목) 인드라니 라자(Indranee Rajah) 싱가포르 총리실 장관 겸 국가개발부 제2장관을 만나, 주택 및 도시계획 정책 분야 협력과 양국 간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이날 면담은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개발은행(ADB)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인드라니 라자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.
- 원 장관은 “한국과 싱가포르는 저출산·고령화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”라고 말하고, 한국의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수도권인구 과밀화와 높은 집값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한국의 주택·인프라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.
- 또한, 원 장관은 올해 서울에서 개최하는 GICC(글로벌인프라협력 컨퍼런스, 9월) 및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(9월)에 인드라니 라자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고, “양국간 인프라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고, 싱가포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자”라고 제안하였다.
- 이에, 인드라니 라자 장관은 한국 정부의 높은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, “싱가포르와 유사한 인구·도시개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는 양국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화답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앞으로도 주택도시 및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강화되도록 고위급 인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2023. 5. 4.

국토교통부 대변인